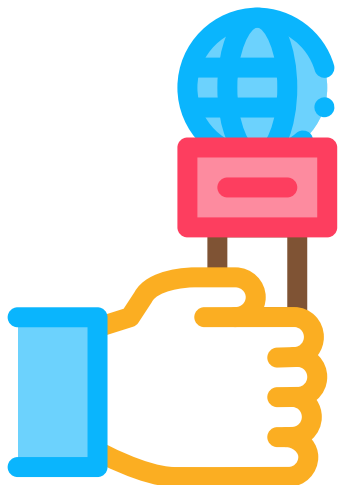


즐거로운 인턴들의 FDI 인터뷰



① FDI 구경했어요!

FDI Symposium 2026

2026년 4월 15일(수) 13:30~17:40 | 페어몬트 앰배서더 그랜드볼룸



인턴들은 FDI 2026을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회사의 대표 행사인 FDI 2026 Symposium!

최근 Fasoo AI로 새롭게 출발한 뒤
고객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던 만큼,

저희도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을 구경했습니다!

FDI에 직접 참여한 인턴들은 각자 세션을 나누어 듣고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② FDI 세션 요약



인턴들이 세션 요약을 해봤어요!

그중 저희 팀은 세 번째 세션인 윤경구 본부장님과 고동현 본부장님의 발표 내용 "AI Transformation Consulting & Solutions" 을 요약해보았습니다.

발표에서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비전, 인프라,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셨습니다. 비전은 AI와 사람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인프라는 GPU 자체보다 데이터 품질과 보안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Data, Model, Skill, Agent, Super App의 5계층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AX 레벨은 개인 보조 → 에이전트 협업 → 비즈니스 혁신의 순서로 발전하며, 파수의 eLLM이 이 여정을 함께 지원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③ 인턴들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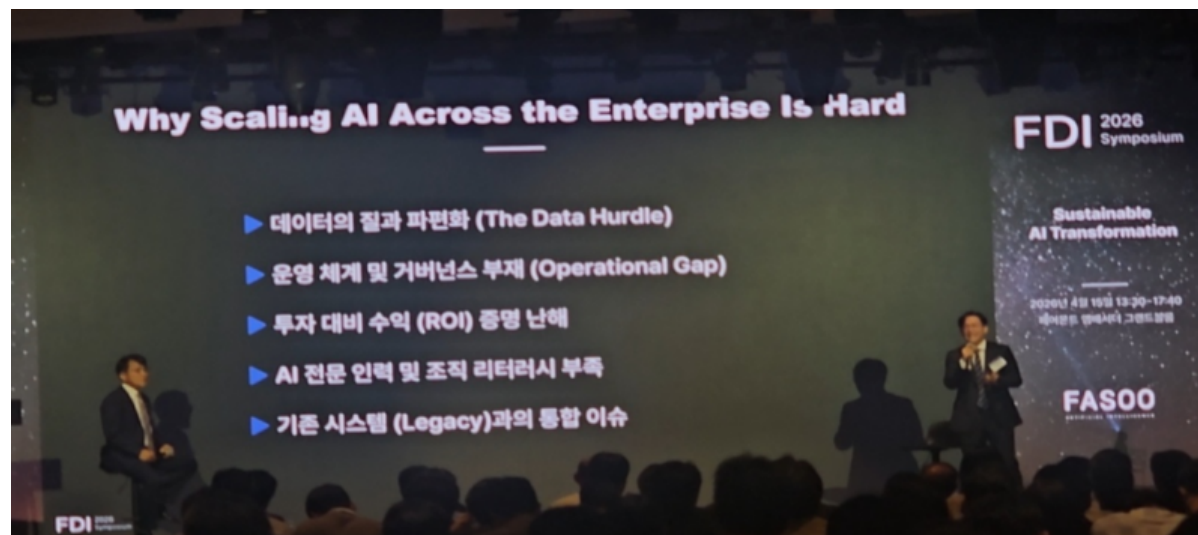
인턴들이 인터뷰를 해봤어요!

하지만 발표를 들으며, 아직 인턴인 저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저희 팀은 윤경구 본부장님, 고동현 본부장님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본부장님들께서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발표를 들으며 생긴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해당 세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부장님들과 함께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4

NS1본부
고동현 본부장님

기업의 AI 도입 실패와 스케일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실패 패턴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은 '비전'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기 많은 기업이 LLM의 사이즈나 내용 생성 기능에만 집중하여 내부에 구축하려 했어요. 이건 스마트폰 시대에 성능이 뒤떨어진 PMP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라 사용자 경험의 불일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부재 역시 스케일업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많은 기업이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에만 치중할 뿐 정작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하거나 정제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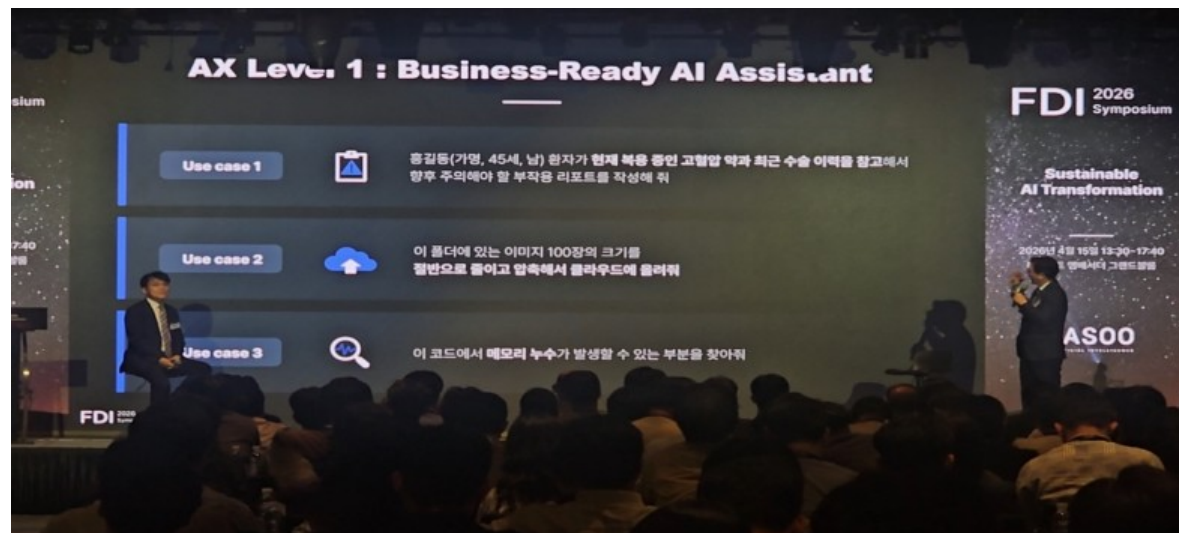
이로 인해 쓰레기 데이터까지 모두 벡터 DB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AI가 자연스럽게 '쓰레기 답변'을 내놓게 되면서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잃고 실패하게 됩니다.

5

NS1본부
고동현 본부장님



AX 1 Level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을 재편하기 위해 필요한 성공 지표(KPI)는 무엇인가요?



성공 지표는 기업이 설정한 구체적인 비전 단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전통적 산업에서는 한 명의 숙련도가 높아지면 전체 공정의 효율이 즉각적으로 개선됐죠. 하지만 현대의 복잡한 서비스 구조에서는 개인이 시로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조직의 프로세스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기업 차원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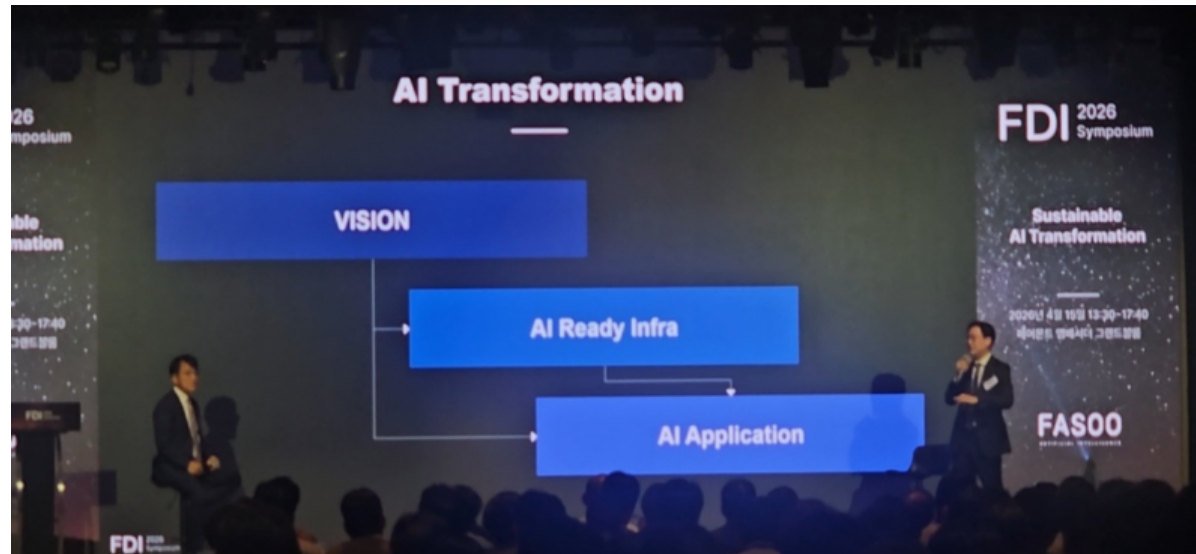
따라서 단일한 KPI를 적용하기보다 고객사가 처한 AX 단계와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 우위에 맞춰 '비전'을 먼저 정해두고 그 비전에서 파생된 개별적인 성공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

NS1본부
고동현 본부장님



AI와 사람의 역할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과 그 고도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초기 경계 설정은 AI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AI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더라도 실제 결과물이 정확한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AI가 업무를 수행한 뒤 사람이 그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역할 고정된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제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됩니다.

결국 AI 도입으로 인력을 드라마틱하게 줄이기는 어렵긴 해요. 하지만 24시간 대응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라는 무형의 자산을 쌓는 방향으로 고도 될 수 있습니다.

7

NS1본부
고동현 본부장님

기업용 에이전트 활용 시 보안성과 자율성 사이의 충돌을 어떤 논리로 설득하시나요?



보안은 권한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에이전트를 통해 자율성과의 균형을 잡아야 해요.
보안 측면에서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기밀 유출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LLM은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권한 밖의 정보까지 친절하게 제공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암호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권한 및 접근 제어를 전담하는 별도의 보안 에이전트를 두어 AI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컨설팅 현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어떤 AI 비전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혁신할 것인지를의 과정에서 보안이 어떻게 기반이 될 것인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8

NS1본부
고동현 본부장님



AX 업무에 기여하기 위해 신입 인턴이 준비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요?



이제부터 신입 직원들은 AI 툴 활용 능력을 넘어 업무의 본질적 흐름을 해결하기 위한 논리를 설계하고 문제를 찾아내는 사고를 갖춰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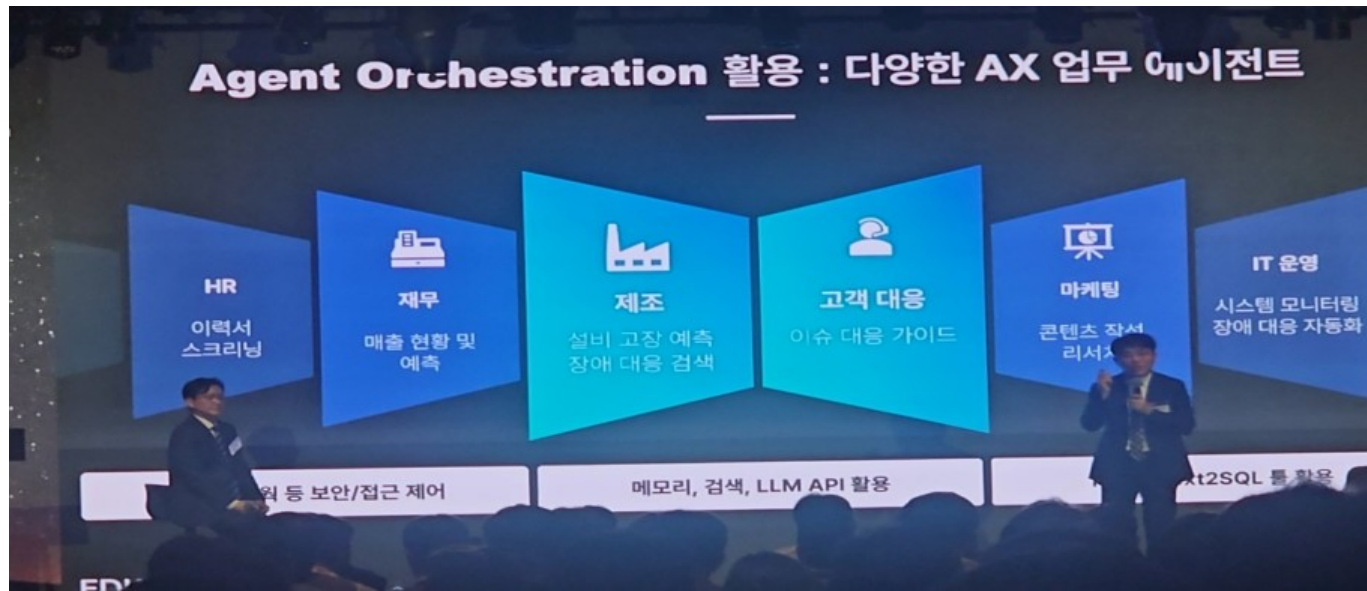
앞으로 AI 사용법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쉬워질 거고 그래서 단순히 툴을 잘 다루는 것은 더 이상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지 못해요.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경험을 통해 지식의 덩어리를 키우고 일상의 작은 불편함에서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어떻게 구조를 바꾸면 해결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비즈니스 로직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인재가 되어야 다가올 AI 및 휴머노이드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9

개발1본부
윤경구 본부장님

AI가 답변한 내용이 사내 컴플라이언스 위반 시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AI 컴플라이언스 위반의 책임은 개인보다 기업과 기술 공급자에게 더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직원들이 AI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정책, 승인 절차, 접근 권한, 보안 기준 같은 관리 체계를 미리 갖춰야 하는데요. 이런 장치 없이 무작정 AI를 도입했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1차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 공급자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면, "우리 서비스를 잘못 쓴 것"이라고 넘길 수는 없거든요. 기업이 믿고 도입한 만큼, 안정성과 신뢰성은 공급사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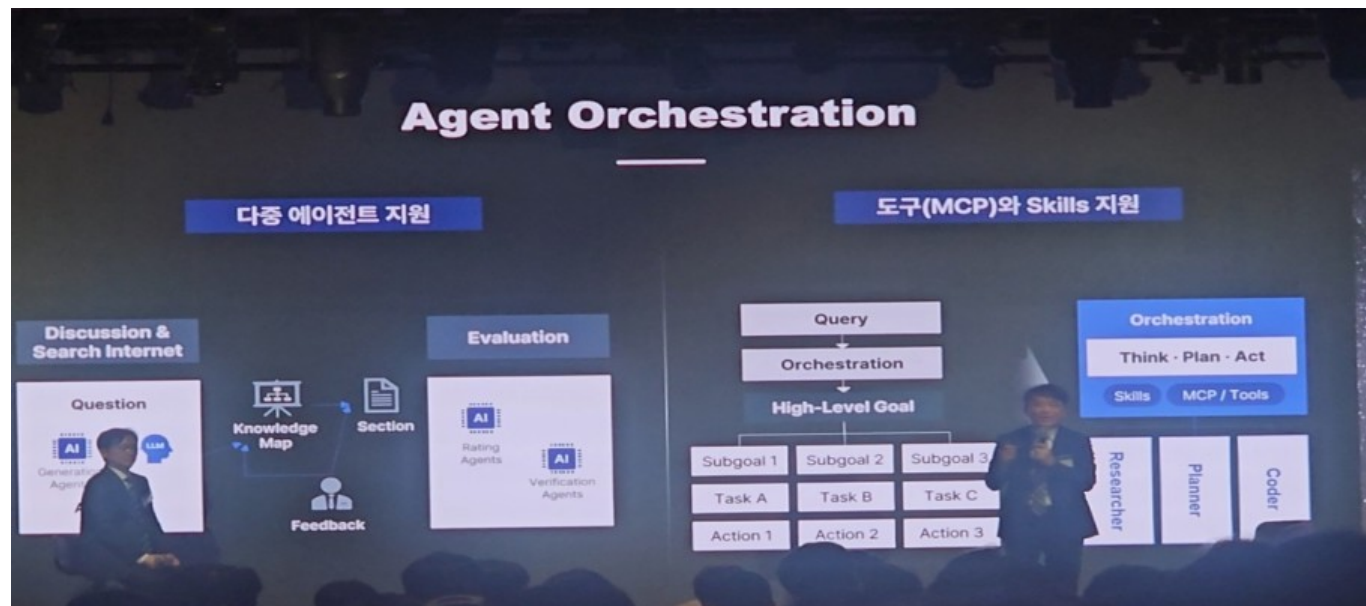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규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우회하거나 AI를 악용해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건 개인 책임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 중 AI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낸 상황까지 개인에게 돌리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도입에서 끝나면 안 돼요. 기업의 거버넌스 체계, 공급사의 기술 안정성, 임직원 교육,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안전한 AI 활용이 가능합니다.

10

개발1본부
윤경구 본부장님

AI에게 학습시킬 데이터,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시나요?



현재 LLM 환경에서는 일반 지식과 전문 지식을 굳이 엄격하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학습시키고, 무엇을 검색으로 보완할지 고민이 컸는데요. 요즘 대형언어모델은 이미 방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제조·의료·금융·법무 같은 전문 영역도 AI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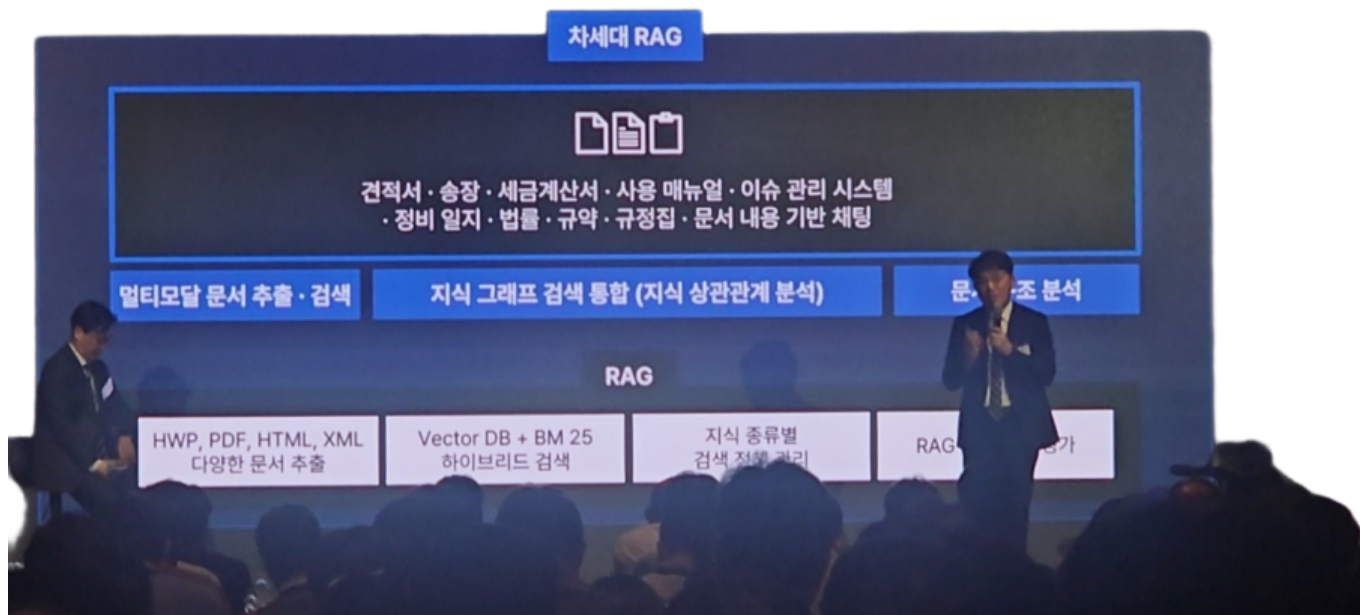
그래서 실무에서는 AI에게 무엇을 외우게 할지보다,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 연결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내 규정집, 업무 매뉴얼, 최신 정책 자료처럼 자주 바뀌거나 내부에만 있는 정보는 RAG 방식으로 연결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고 관리도 편하거든요.

결국 기업이 집중해야 할 건 데이터를 무조건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정리해두고 시가 필요할 때 정확히 찾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개발1본부
윤경구 본부장님

고객사마다 RAG 구조를 설계하실때 어떤 기술 설계 & 조합을 결정하시나요?



기술 조합의 기준은 최신 기술이 아니라, 실제 성능 평가를 통해 고객사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고객사의 FAQ와 실제 업무 질문으로 AI 정답률을 확인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모델을 탓하기보단 파이프라인 전체를 들여다봅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문서가 제대로 읽혔는지, 청킹(Chunking)이 문맥을 끊지는 않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거죠. 데이터 품질이 확인되면 키워드 검색, 벡터 검색, 하이브리드 검색을 직접 비교해보는데요. 문서 간 관계가 복잡한 경우엔 지식 그래프도 함께 활용합니다.

결국 RAG 설계는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고객사 데이터와 성능 결과를 보면서 가장 잘 맞는 조합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12

개발1본부
윤경구 본부장님

Private LLM의 도메인 지식 한계, 파수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파수는 AI 기술을, 고객사는 도메인 지식을 서로 공유하며 함께 채워가는 방식인데요. 어느 한쪽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협업 자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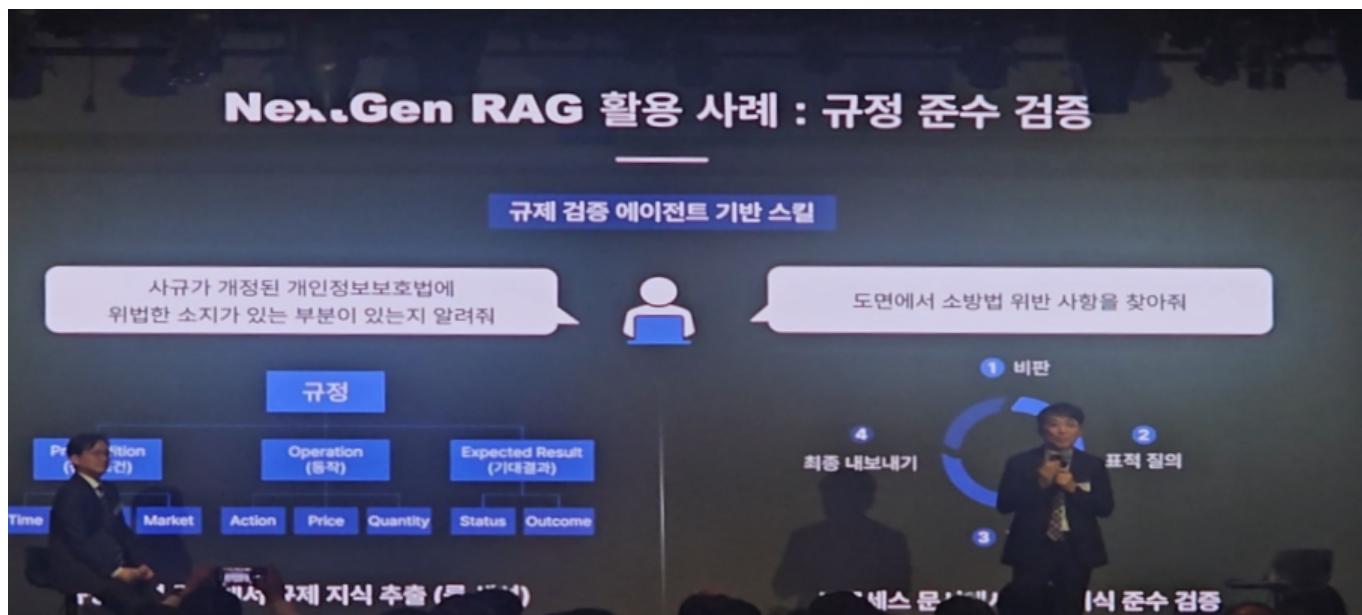
다만 요즘은 고객사도 AI에 대한 이해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도메인 지식은 물론이고 AI 기술까지 깊이 아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저희도 그만큼 더 성장해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문제를 마주했을 때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 그리고 **고객의 지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예요. 도메인 지식이든 AI 지식이든, 배움에 닫혀 있으면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13

개발1본부
윤경구 본부장님

보안과 업무 효율 사이, 신입사원은 어떻게 AI를 활용해야 할까요?



AI 시대의 신입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협업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AI는 일 처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비판적 사고 없이 결과만 받아들이다 보면 중간에 생긴 오류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고 AI와 토론하듯 대화하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결국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AI의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맥락을 파악하는 이해력, 그리고 AI와 함께 더 깊이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면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개발1본부
윤경구 본부장님

Q A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보안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 eLLM 2.0은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eLLM은 보안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기반 격리, 접근 제어, 그리고 철저한 추적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gent 앱들이 파이썬 코드 등을 실행할 때, 권한이 제한된 컨테이너 환경 안에 가둬서 외부 유출이나 침입을 차단합니다.

여기에 파수의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 마스킹과 사용자 권한에 따른 접근 제어도 함께 적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최신 AI 공격 기법에 대응하는 보안 기술을 eLLM에 지속적으로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5 인터뷰 소감



인턴들이 인터뷰하고 소감을 적어봤어요!



CPS보안팀 손무현

두 본부장님에 강연 듣고 인터뷰 진행함으로써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AI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저 자신의 비전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FDI는 저에게 있어 회사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자리인 동시에, AI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고객서비스팀 왕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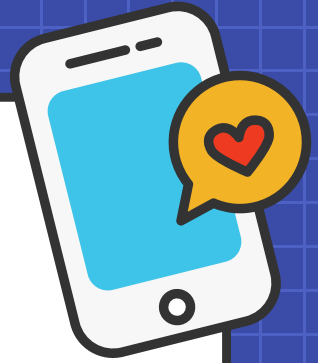
인터뷰를 준비하고 기획하면서 FDI 2026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FDI뿐만 아니라 앞으로 파수가 그려나갈 미래 방향성까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수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뜻깊고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래의 AI 시대에 발맞춰 성장하고 사고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CPS사업팀 채시윤

FDI 2026은 파수의 일원이 되어 처음으로 참여한 행사인 만큼 뜻깊었습니다. 이번 FDI 2026과 본부장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적 숙련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사고의 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파수의 일원으로서 변화하는 AI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라인을 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FASOO | AI



감사합니다!



인턴 손무현, 왕병권, 채시윤